

## Chapter 25. Digital Divide and GeoAI

발제자께서는 본문에서 제시된 GeoAI 시대의 디지털 격차를 단순한 기술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컴퓨팅 자원, 디지털 리터러시가 결합된 다차원적 권력 불평등으로 진단하며, 그 해소를 위한 방안을 자본과 연계하여 비판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격차의 해소 방안이 자본 투입이 전제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합니다. 실제로 AI 학습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AI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연히 재정적 지원 없이는 실현할 수 없는 방안들이고, 더 나아가 이런 걸보기에 보편적 해결책으로 보이는 방안들이 이미 자본 의존적 솔루션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발제문에서 제시한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논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글로벌 스케일의 '자본 재분배' 역시 추상적인 해결 방안으로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글로벌 남부가 글로벌 북부의 자본 및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물질적·비물질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자본과 연계되어 있고 정치적 협상과 권력의 재편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논의는 자본 투입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자본 의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sup>1)</sup>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발제자께서 주장하신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의 자본 의존적 한계는 분명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담론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의 투입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의존하는 것 자체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 의존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1) 오픈소스 기반 기술, 소규모 분산형 인프라 구축 등.

## Chapter 26. Advancing Human Geography with GeoAI: Transforming Land Use and Land Cover Analysis

발제자께서는 GeoAI의 발전이 인문지리학의 고전적 주제인 토지 이용과 피복 분석을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세 가지 방향으로 확장해 해석하셨습니다. 방법론적 혁신과 소외된 공간의 재조명, 마지막으로 XGeoAI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은 현대 인문지리학이 직면한 한계점과 잘 부합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기술 중심적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GeoAI의 발전과 활용이 우리(인문지리학자)에게 더 나은 결과로 귀결된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방법론적인 혁신이 정량적 공간 데이터 해석과 같은 일에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연구에 있어, 데이터의 해석이라는 부분에서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언가를 연구하려 할 때, "인문지리학적으로 무엇을 질문하고 도출할 수 있는가?"보다 단순히 "무엇을 측정할 수 있고, 데이터화 할 수 있는가?"로 생각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문지리학의 비판적 시선과 해석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GeoAI의 발전으로 소외된 공간의 재조명이 전보다 빨라지고 명확해지면서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데이터가 빠르게 생산되다 보니 악용의 우려가 커지고, 지역 입장에서 외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XGeoAI 역시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정당화의 도구로써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제문의 결론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인문학적 따뜻함'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보다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기술의 정밀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학문적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 Chapter 27. Cross-Disciplinary Opportunities for GeoAI and Human Geography

### 토론거리

Q1)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심상지리'는 GeoAI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가시화될 수 있는가?

A) GeoAI는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심상지리를 일정 수준까지 가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문에서 언급하신 지명 추출(개체명 인식, NER), 인물과 장소 간의 관계 분석, 이동 경로의 시각화는 기존의 독해를 통해 심상으로 떠올리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가시화일 뿐 전체 심상을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문학에서 심상지리는 위치 정보뿐 아니라 그 장소에 담긴 기억, 감정 등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상대성이 강하고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이렇게 정서적 맥락이 다양한 상황은 GeoAI가 모두 읽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한계점이 명확하다 생각합니다.

Q2) 한국 근현대 문학의 공간(경성, 만주, 고향 등)을 GeoAI로 분석할 때, 역사적 기억과 감정의 층위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앞서 언급한 대로, GeoAI(다른 AI도 마찬가지)는 정서적 맥락을 해석하고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반영하거나, 해석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감성 분석 모델을 적용할 경우, 특정 장소가 등장하는 문학에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맥락을 파악해 그 장소에 어떤 정서가 동반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데이터의 결합입니다. 문학에 등장하는 장소(ex. 경성)에 작품의 창작 시기, 작가의 정보, 당대의 정치적,시대적 상황 등 공간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